

예수님의 재림 징조들

큰 전환점이 올 것인가 – 아니면 세상의 끝이 올 것인가?

님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특별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기원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이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 3~14절

“3 그 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와서 여쭙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5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6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7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곳곳에 굶주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9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희를 통치자들에게 넘겨 갖은 고통을 당하게 하고, 너희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다. 10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11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12 세상은 더욱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굳세게 건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14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요즘 같은 이성 중심 시대에 종말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도 끝이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결코 어색하거나 과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끝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를 계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결코 재림의 날짜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시대의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장 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에 주목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당시에도 적용되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시의 징조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말의 징조란 단 한 번 일어나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퍼지고, 깊이 영향을 미치는가가 핵심입니다.

어떤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1. 미혹(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2. 전쟁
3. 기근, 물가 상승
4. 전염병

5. 지진
6. 기독교인 박해
7. 불법
8. 세계 복음 전파

징조 1: 미혹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되었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우다스, 갈릴리 출신 유다, 요나단, 도시데오스, 시몬 그리고 서기 66년에 로마 군대를 물리친 열심당의 지도자 므나헴까지 이들 모두는 자신이 메시아 곧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미혹은 사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성경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다른 의미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섞는 일, 이것은 때때로 명백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900여 년 전 이미 이러한 미혹의 징조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혹’은 말세에 있을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혹의 징조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서서히 그러나 엄청난 규모로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미 미혹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무신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시대의 또 다른 모습은 물질만능주의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화도 등장했습니다. 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마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된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모습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려 합니다.

또한 죄가 가진 두려운 힘과 본질을 가볍게 여기고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 신학은 점점 더 세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학문적 연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성경보다 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현대 신학만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뀐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신앙, 신비주의, 이교 종교가 뒤섞이기 시작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요가, 초월 명상, 선(禪), 뉴에이지 사상 등 여러 형태가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사라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이러한 미혹들은 오히려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각종 ‘비밀스러운’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오컬트(주술적 신비주의), 스피리티즘(영혼과의 교류), 에소테릭(비의적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전염병처럼 퍼졌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토론토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비 체험, 오컬트적인 방식의 치유 그리고 외국어의 은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방언 등입니다.

또 하나의 미혹은 **세계낙관주의**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전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거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평화다. 평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참고).

또 다른 미혹은 **자기기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리화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제 자거라.”라고 말했을 때 아이는 그 뜻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피곤하기 때문이겠지. 아버지는 내가 피곤한 것을 원하지 않으셔. 내가 놀면 피곤함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놀러 가야지. 그러면 결국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런 태도는 자기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

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유혹자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순종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식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와와 아담을 딱 한 가지 부분에서 미혹함으로써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사탄에게 단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미혹당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혹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재림 징조 가운데 하나인 이 ‘미혹’은 오늘날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징조 2: 전쟁

그렇다면 **전쟁, 전쟁의 위협**,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예전부터 늘 있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정말 징조라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새롭고 특별하며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이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 주는 징조가 아닐까요?** 인본주의자들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범죄와 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적 사건들은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르완다에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대학살한 일 또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벌어진 군사 충돌과 인종 대청소입니다. 그리고 구소련 동쪽 지역의 분쟁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쟁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동과 아랍 갈등은 현재 인류가 여전히 폭탄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전쟁의 위협에 대한 뉴스는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전쟁의 빈도와 범위가 점점 더 커짐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확

실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점철된 시대였습니다. 이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혹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1억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다시 2,500만 명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계 대전에서의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은 이전의 모든 전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날 **무기 개발**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1944년 당시에는 프랑스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1억 개의 대형 폭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탄 하나로 어쩌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맛도 느껴지지 않는 생화학무기로 한 나라 전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은 어떨까요? 현재 세계 각국은 사상 최대의 규모로 군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잠깐의 긴장 완화는 있었지만 전쟁 대비에 쓰이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증강과 분쟁은 인류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삼켜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돈을 들여 최신식 전투기, 전차, 전함 등 매우 정교하고 첨단화된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기들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다른 더 절실한 곳에 쓰여야 할 엄청난 자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징조 3: 기근과 물가 상승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성경 사도행전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도 이를 확인해 줍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정말로 기근이 들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징조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20세기는 역사 속에서 가장 극심한 기근의 시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 대전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21년과 1922년,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무려 3,8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북극 탐험가인 난센 박사는 당시 러시아를 위한 구호 활동을 이끌었으며, 그는 이 기근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기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아의 참혹함이 너무나 컸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식인 행위까지 발생했습니다. 1928년부터 1930년 사이

에도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또다시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사헬 지대와 뿔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근도 잊을 수 없는 비극 중 하나입니다.

기근과 경제적 고통의 징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년 9백만 명이 이상이 기아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3초마다 한 명이 굶어 죽는 셈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아이들이 주된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일곱 명 중 한 명은 저체중, 네 명 중 한 명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굶주림이 계속되는 지역의 15세 이하 어린이 수는 수억 명에 달합니다. 그들 중에는 한 번도 우유를 마셔 본 적이 없고, 신발을 신어 본 적도 없으며,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매일 수많은 학생이 도시락을 그대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경제적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미 언급한 군비 지출 외에도 부패, 착취, 탐욕, 불공정한 소득 분배, 무분별한 투기 등 수많은 요인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유한 나라에서도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수입보다 훨씬 많은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국가, 기업, 개인 어느 영역에서도 부채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힘겹게 쌓아 온 부는 결국 빛의 땀에 빠지고 맙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물질주의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뿌리박혀 있으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될 것이라 말합니다. “1 그대는 이것을 알아 두어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이다.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남을 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고마워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며, 3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남을 욕하고, 절제를 모르며, 잔인하고, 선한 것을 미워하며, 4 배신하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디모데후서 3장 1-4절).

여기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긴장**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엄청난 부가 쌓이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는 극심한 빈곤이 존재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에 대해 중요한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 부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칠 슬프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우십시오. …3 **마지막 심**

판의 날에, 여러분이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4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뽕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품삯이 여러분을 고발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추수한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나라마다 그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기근과 경제적 고통”이라는 징조는 오늘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징조 4: 전염병

오늘날 전염병과 지구 오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1차 세계 대전 이후 인플루엔자와 여러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4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처럼 병원과 의사가 많은 때가 없지만 오늘날 인류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암, 심혈관 질환, 다양한 이른바 문명병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생활 조건이 좋아진다 해도 질병은 항상 인류의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중 많은 질병이 인간의 생활 습관과 점점 더 파괴되는 환경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에이즈, 알츠하이머, 뼈와 근육 질환, 번아욱, 다양한 정신 질환 등은 현대 사회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착취합니다. 그 결과 동물들도 병에 걸리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의 식사를 통해 돌아옵니다. 이와 함께 **중독성 질병들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수질과 대기 오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학약품, 자동차, 높은 에너지 소비량, 현대적인 생활 방식 등으로 인해 단 한 세대 만에 지구를 파괴 직전까지 몰고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당장 모든 오염과 착취를 중단하더라도 지구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려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 아래의 땅을 살피보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 헤어지며 그 위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으리라.**”(이사야 51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생태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사용, 가공된 씨앗, 동물에게 주어지는 호르몬과 항생제 등은 끊임없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축 사육을 위해 **지구의 열대우림이** 초당 10헥타르 이상 **빠르게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합친 면적만큼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산소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의 숲은 산성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산성비는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독성 가스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역시 지구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입니다. 오염된 대기 환경으로 인해 대기 중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강풍의 빈도와 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난화, 전염병과 지구 오염의 징조들, 온실효과로 인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단일 작물 재배 같은 잘못된 농업 정책과 인간의 오용으로 인해 아랄해나 차드 호 같은 거대한 담수 자원이 말라 가고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해지고**, 많은 지역에서 더 이상 깨끗한 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 화학약품, 배설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는 오염되었고, 추정에 따르면 세계 바다에는 1억 4,200만 톤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으며, 해수면 1제곱킬로미터당 최대 18,000개의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수천 마리의 돌고래가 오염된 바닷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수없이 많은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병들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이런 지속적인 해양 오염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합니다.

과거 전쟁 때 바닷속에 버려졌던 독가스 용기들은 지금도 서서히 부식되고 있으며, 화학 폐기물 투기, 유조선 사고, 정화되지 않은 폐수 방류 등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독물질들은 먹이사슬 속에서 점점 농축되고 있으며**, 과거에 금지되었던 DDT의 경우 최대 75만 배까지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육류 소비가 채식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낡은 옷처럼 낡아가고, 인간은 지구를 망가뜨린다.” 오늘날 과학계는 이런 현실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관론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근거 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요한복음 14장 3절).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다”(요한계시록 21장 5절). “전염병과 오염”이라는 징조는 오늘날 매우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언급된 징조입니다.

징조 5: 지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의 지진 활동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크레타, 스미르나, 밀레도, 키오스, 사모스, 로마, 골로새 등지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도시들은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63년 로마 시대의 폼페이 멸망이 유명합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때때로 이런 반론을 듣게 됩니다.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진이 '특별한 징조'라면 이 분야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진 통계를 보면 발생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측정 장비의 발전 때문일까요? 과거에는 10분 동안 2~3번의 지각 변동만 측정되었지만 오늘날의 정밀한 장비로는 같은 시간 안에 수백 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지진은 언제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기 800년부터 1900년까지 약 1,100년 동안 발생한 큰 지진은 9건입니다. 반면에 20세기에는 15건의 심각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의 40배에 달하는 증가입니다.

거대한 인공 댐의 건설과 지하 핵실험도 논란이 많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고 일부 과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연재해들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 극심한 가뭄 또 반대로 쏟아지는 폭우(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평방미터당 거의 2미터에 달하는 강수량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쓰나미 등 이 징조들 역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조 6: 기독교인 박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시기에도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권력 있고 강력한 종교 집단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도록 가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규칙에만 매달려 있다"(마가복음 7장 8절). 결국 그들은 로마 제국 즉 국가 권력을 움직여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시 주류 종교 세력에게 이단 취급을 당하며 피로 물든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박해자는 바로 국가였습니다. 그 예로 네로 황제만 떠올려도 충분할 것입니

다. 초대 교회는 이 로마 황제 아래에서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네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왜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들은 가장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사도행전 5장 29절).

세 번째 박해자는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할 것이다." 믿음에 충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형제들을 배신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박해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리고 거짓 형제들로부터.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20세기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던 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인도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2019년 기준 세계 박해 지수 상위 10개국에 속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살해당하고, 고문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며,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잔혹함은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서구 세계에는 자유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나머지 세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징조 7: 불법과 무질서

대형 범죄부터 작은 일탈까지 이 세상의 무질서와 법을 무시하는 풍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의 또 하나의 징조이며 전례 없이 폭증하는 범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날은 산업 일부 심지어는 국가들까지도 조직범죄에 크게 잠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피아나 유사한 범죄 집단들이 지구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상의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조직범죄는 마치 암세포처럼 계속해서 퍼져 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국의 한 국장은 몇 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국민 스포츠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실업률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 증가 또한 법을 어기고 질서를 해치는 일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도시는 농촌보다 두 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주요 범죄 발생지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부패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한 고위 법무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흰 양 떼 속에 검은 양이 드물게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검은 양 떼가 되어 버렸다.”

징조 8: 세계 복음 전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징조들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징조들에 대해 “이것은 끝의 시작일 뿐이다. 마치 출산의 고통의 시작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해산의 진통이 시작된 뒤 곧 태어남의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즉 **출산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징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마태복음 24장 14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복음, 변질되지 않은 참된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부릅니다. 즉 이 복음은 시대가 지나도 결코 **그 의미나 능력을 잃지 않을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징조로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세계 복음 전파’라는 징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세대 안에서 인구가 훨씬 적었던 당시의 세상에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개역개정)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고 1장 23절에서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와 같은 수준의 복음 전파는 초대 교회 이후 다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민족, 언어를 가진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이 일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 복음 전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1960년경 교회들은 일명 ‘평신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사역 구조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힘 있게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교인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1990년 이후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 세계에 약 230개의 나라가 있으며 그중 200개 이상의 나라에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30개 국가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새로운 관점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를 각각 인구 100만 명 단위의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1990년 기준으로 우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지역 중 약 2,300개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세계 선교(Global Mission)”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 약 450개의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250개 이상의 선교 계획이 실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이러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절반 이상의 미전도 지역을 개척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개척 선교사들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며, 많은 경우 자비로 혹은 소규모 후원을 받아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며, 매년 더 많은 사역자들이 파송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날의 모든 현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교용 비행기, 선교용 배,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방송,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성경통신과정, 전도지, 잡지, 책자, 신문 광고, 컴퓨터, 팩스, 이메일, 인터넷, 1대1 개인 전도, 소그룹 모임(가정 교회), 세미나 및 대규모 복음 전도회, 의료 선교, 개발 지원, 재난 구호 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기술이 복음 전파를 위해 놀라운 규모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800년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서공회(Bible Societies)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서공회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며, 오늘날에는 성경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언어로의 번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

유엔의 전 사무총장인 우 탄트(U Thant)는 1970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10년 안에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들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기아, 범죄, 중독, 환경 파괴, 인종 혐오, 인플레이션, 성적 타락, 정신적 불안, 극단주의, 부패, 인구 폭발, 에너지 부족, 토양 침식, 방사능, 핵폐기물, 전염병 등. 이 모든 문제의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세주가 오십니다

그리스에는 유명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자에게는 세계의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 복잡한 매듭을 칼로 단숨에 끊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줍니다. 세상의 이 매듭들을 풀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세계의 통치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태복음 24장 33절 개역개정).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진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장 8절). 출산을 앞둔 진통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는 더욱 세집니다. 이것은 재난의 양상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재난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욱 강하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전환점인가, 종말인가?

우리는 지금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끝’에 다다른 것일까요?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환점’과 ‘세상의 끝’은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이 둘 중 무엇이 찾아올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초대가 강력하게 온 세상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곧 온 세상을 다 덮게 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도 세상의 징조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 헬무트 하우바일

- ▶ 추천: 편지 #6, #8, #9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 문의: juheeyeon@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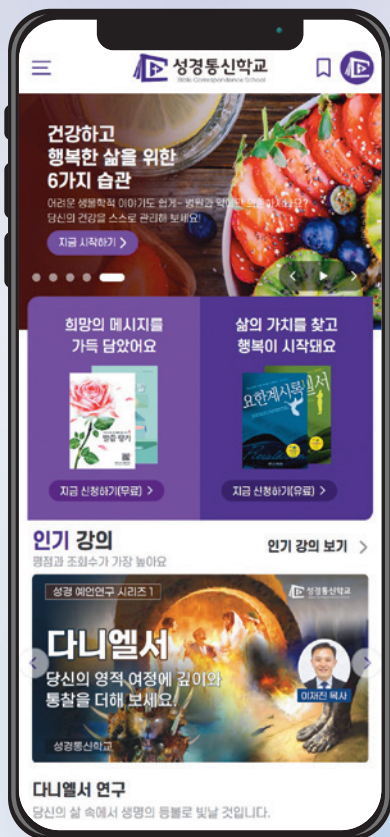
memo

성경통신학교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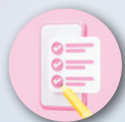


앱스토어에 '성경통신학교'를 검색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e-러닝 강의

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스마트 웹북

성경통신학교를 모바일 웹북으로 공부하여 삶의 지혜를 배우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Zoom)

각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줌(Zoom)으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e-러닝 강의와 스마트 웹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포인트가 쌓입니다(추천인 포인트 있음). 삼육몰과 시조사물에서 사용 가능



서적 신청(무료·무료)

편하게 홈페이지와 앱에서 서적을 신청하여 구도자 분들에게도 무료 서적을 보내세요.



성경통신학교
Bible Correspondence School

1670-5235
http://www.vop.or.kr/

